

평창 올림픽 50일 앞으로...한국 종합4위 향해 스포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이래 6년 6개월 간 숨 가쁘게 달려온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조직위원회는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세계인을 맞이한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래 30년 만에 다시 우리 땅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안전·문화·정보기술(IT) 올림픽을 지향한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일부 나라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올림픽을 약속한 우리 정부와 IOC, 유엔 등 국제사회의 공조로 위기를 이겨내 참가국은 사상 최다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북한과 갈등 관계인 미국이 선수단을 보내기로 하고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파문으로 IOC의 징계를 받은 러시아도 개인 자격으로 자국 선수들의 평창행을 허락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강대국의 참가로 평화올림픽의 기쁨은 마련됐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 의사를 밝힌 나라는 92개국으로 역대 최다 출전국 기록을 작성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88개국)보다 많다. 엔트리 마감 최종일인 내년 1월 29일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새 기록을 쓸만한 분위기는 조성됐다.

평창조직위는 IOC와의 조정위원회를 지난 8월에, 실무 점검회의인 '프로젝트 리뷰'를 지난달 22일에 각각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손잡이에 들어갔다.

강릉, 평창, 정선에서 자리한 12개 경기장과 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 올림픽플라자는 대회 개막 3개월 전 이미 완공됐다. 조직위는 또 지난 15일 참가 선수들의 보급자리인 평창올림픽선수촌과 강

7개 종목·130명 출전 목표
소치보다 9계단 순위 상승 도전
출전국 92개국 '역대 최다'

지금 평창은
12개 경기장·선수촌 등 완공
서울~강릉 KTX 내일 개통
내년 1월 9일 미디어센터 개방

릉올림픽선수촌의 준공을 선언하고 미디어에 개방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KTX는 시험 운전을 마치고 22일 정식 개통된다. KTX가 개통되면 설상·설매 종목이 열리는 평창·정선과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을 찾는 외국 선수단과 수도권 관광객들은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창조직위는 개막 한 달 전인 내년 1월 9일 미디어센터를 개방하고 실시간 대회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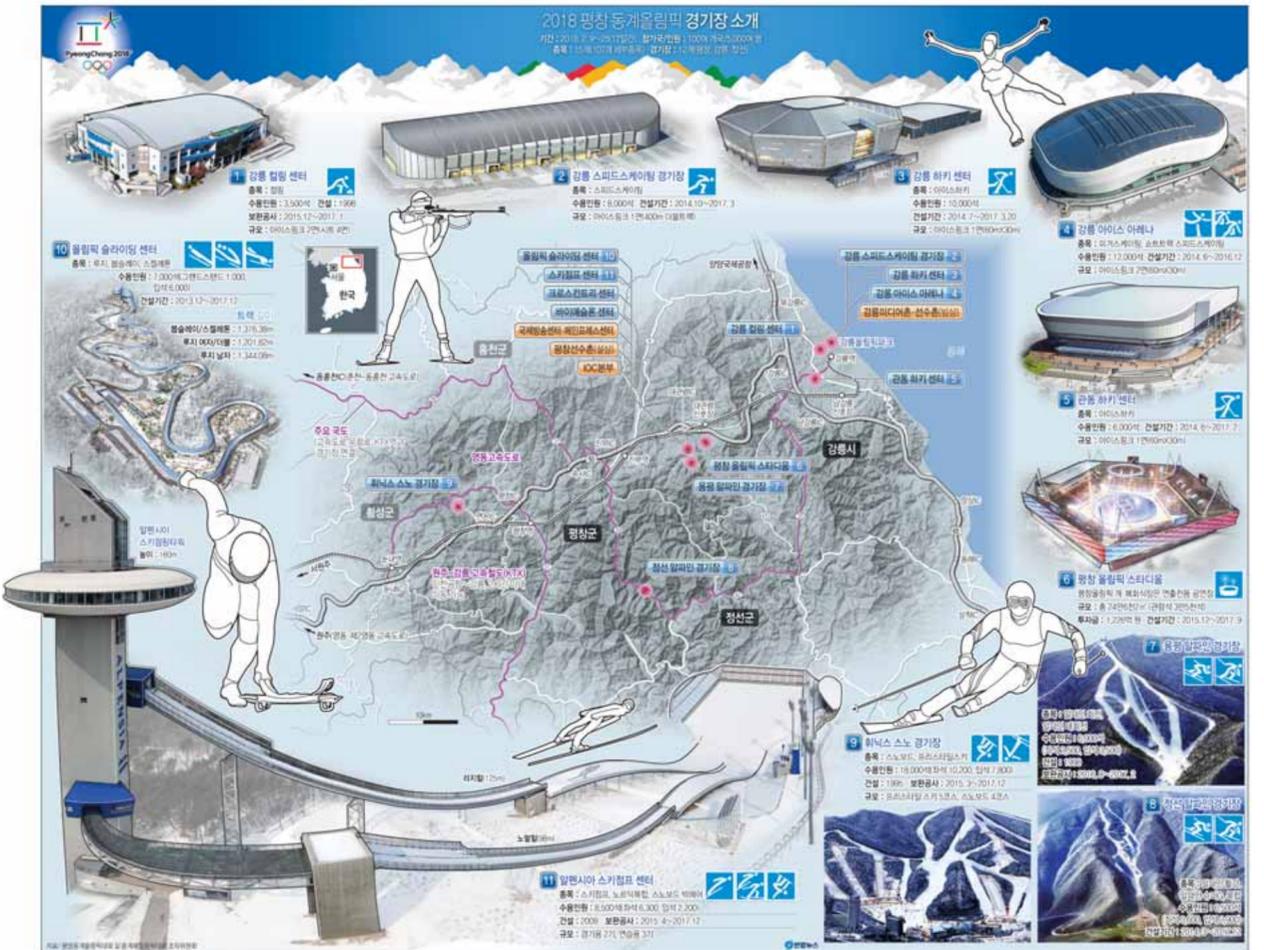
하드웨어는 구색을 갖춘 만큼 자원봉사자 교육, 외국 선수단 숙식 지원, 교통 통제 등과 같은 운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세심하게 다듬는 일만 남았다.

개막 100일에 맞춰 지난달 1일 우리 땅에 30년 만에 도착한 올림픽 성화는 2018km에 달하는 봉송 레이스로 올림픽 불에 불을 당겼다. 인천-제주-부산-광주-전주-대전을 거쳐 18일 청주에 입성한 성화는 20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진천선수촌을 거치는 등 올림픽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다.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대륙전사들도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이달 현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 대표선수 4개 종목, 총 95명이다. 3개 종목에서 출전권 확보자가 더 나올 전망이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1차 목표인 7개 종목, 130명 출전에 가까이 다가갔다. 한국은 3년 전 소치 대회 때 6개 종목 71명을 파견했다.

우리나라는 아울러 소치 대회보다 9계단 상승한 종합 4위를 2차 목표로 세웠다. 개최국 이점을 살려 최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수확하는 게 꿈이



러 스키협회 “평창올림픽 출전 자국 선수 적극 지원”

러시아 스키협회가 개인 자격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러시아 협회의 서신은 신 회장의 약속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러시아는 이 드레이 보카레프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협회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스키협회 신동빈 회장

이 지난 12일 러시아 협회에 전서를 보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단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20일 “러시아 협회 안드레이 보카레프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협회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스키협회 신동빈 회장

IOC가 정한 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만 평창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현재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랭킹 3위 알렉산더 불슈노프와 2014년 소치 대회에서 스노보드 알파인 2관왕에 오른 빅 알월드 등이 평창에 올 수 있게 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흥행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건 스킨슬레톤의 남자 윤성민(강원도청), 역시 월드컵 1, 4차 대회 매스타트에서 우승한 스피드스케이팅 황제 이승훈(대한항공), ‘쌍두마차’ 심석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성남시청)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 캐기를 주도한다.

최근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36초36)에 근접할 만큼 페이스를 끌어올린 ‘빙속 여제’ 이상화(스포츠타운)는 여자 500m 3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불멸의 이정표에 도전한다.

“군기반장으로 돌아왔다고요? ... 후배들 고충 들어야죠”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웅이 투수 코치로 타이거즈 마운드에 복귀한다. 서재웅이 2018시즌 KIA 타이거즈 투수 코치로 활약한다. 보직은 추후 결정된다. 서재웅은 지난 2015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지난 2년간 SBS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관망자로 그라운드를 내려왔던 서재웅은 외유를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됐다.

광주일고 비리거 3인방의 ‘만행’이었던 서재웅은 메이저리그 통산 118경기에 나와 28승 40패, 4.6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2008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2015년까지 8시즌 동안 KIA 선수로 뛰면서 4.3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64경기 42승 48패 2세이브 4홀드의 성적표를 남겼다.

2009년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그는 2012시즌에는 두 경기 연속 완봉과 함께 44이닝 무실점 행진을 하며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의 37이닝 기록을 뛰어넘기도 했다.

익숙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된 서재웅은 “기분이 좋다. 야구는 내가 오랜 시간 해왔던 것이다. 선수와 코치는 많이 다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배운다는 것이 설렌다. 야구를 하는 입장

서재웅 KIA 코치로 복귀
해설위원 하며 전 구단 관찰
야구 넓게 보는 데 좋은 경험
‘소통의 야구’ 하겠다

이 아니라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 됐다”며 “군기반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웃음). 선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했던 부분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수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풀어내야겠다”고 ‘소통의 야구’를 말했다.

해설위원으로 보낸 시간은 또 다른 야구를 풀어가는 데 좋은 경험이 됐다는 평가다.

서재웅은 “KIA를 포함해서 10개 구단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현장도 보고, 프런트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에 야구를 넓게 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후배들을 아우르던 호탕한 성격으로 젊은 KIA 마운드에 ‘형님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초보 코치’ 서재웅은 ‘컨트롤 아티스트’의 면모도 컨트롤에 약점을 보이는 KIA 마운드를 맡게 된 그에게 기대되는 또 다른 능력이다.

선수시절 서재웅은 자신의 컨트롤 비결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강속구 투수였던 그는 팔꿈치 부상 이후 컨트롤 투수로 변신을 한 케이스다.

서재웅은 “빠른 볼을 내려놓는다는 게 가장 힘들다. 노력을 많이 했다. 스피드를 조금 줄이더라도 컨트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며 “너무 빠른 볼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컨트롤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캐치볼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캐치볼을 하면서 정확하게 던질 수만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빠른볼로 컨트롤을 잡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던지면서 감을 잡으면 수월하다.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천천히 던지는 것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화 이용규, 연봉 4억 계약...5억 삭감

‘FA(자유선수계약)’ 관리 행사를 1년 미룬 한화 이글스 외야수 이용규(32·사진)가 대폭 삭감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했다. 한화는 20일 “이용규와 4억원에 2018 시즌 연봉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2014년 한화와 4년 67억원에 FA 계약을 했다. 2017년 연봉은 9억원이었다.

한화에서 4시즌을 보낸 이용규는 이번 겨울 다시 FA 자격을 얻었지만, 권리 행사를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용규는 올해 왼쪽 팔꿈치 통증을 안고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다. 이후 공을 던지기 힘들 정도로 팔 상태가 악화해 개막 엔트리에 빠졌다. 4월 20일 1군에 등록했지만, 5월 2일 SK와 이번시즌에서 오른손목이 골절돼 다시 재활에 돌입했다.

부상이 겹친 이용규는 올해 1군에서 57경기만 뛰고 타율 0.263에 그쳤다. 장점인 출루율도 0.332에 머물렀다.

“오승환 2018년 반등 예상”

야구 예측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가 2018년 오승환(35)의 반등을 예상했다.

ZiPS로 예측한 2018년 메이저리그 각 구단 성적을 하나씩 공개하는 미국 팬그레프트닷컴은 20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선수들의 내년 성적을 전망했다. 오승환은 자유계약선수(FA)다. 세인트루이스와는 사실상 결별했다. 하지만 일단 ZiPS는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가정하고 성적을 예측했다.

ZiPS는 2018년 오승환이 58.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3.39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비와 무관한 평균자책점은 3.12. 조정 평균자책점(ERA+)은 121로 예상했다. ERA+에서 100은 ‘평균’이다. ZiPS는 오승환이 내년 평균 이상의 활약을 펼치리라 예상했다.

트루이스와는 사실상 결별했다. 하지만 일단 ZiPS는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가정하고 성적을 예측했다.

ZiPS는 2018년 오승환이 58.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3.39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비와 무관한 평균자책점은 3.12. 조정 평균자책점(ERA+)은 121로 예상했다. ERA+에서 100은 ‘평균’이다. ZiPS는 오승환이 내년 평균 이상의 활약을 펼치리라 예상했다.